

- 1. 활력있고 안전한 도시
- 1.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 1.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
- 1.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 1.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사천시보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중심, 행정조직 개편



시는 민선4기 출범 후 신청사 개청을 앞두고 생산적 조직운영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제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2월 27일자 로 행정 조직을 개편, 시행에 들어갔다.

【개편총괄】

- 2국, 1의회, 2직속기관, 2담당관, 1단, 16과, 4사업소, 1출장소, 14읍면동

【실과 읍면동 직제】

- 담당관, 단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체육지원단
- 총 무 국 :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 지역개발국 :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

- 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 의회사무국 :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 직 속 기 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
- 출 장 소 : 신수출장소
- 읍 · 면 · 동 (변경없음)

【주요개편 내용】

-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7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복지, 고용, 평생교육, 주거복지, 생활체육, 문화, 관광)업무를 총무국 산하로 통합하여,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여 관련업무 실과별 분산 조정하였으며,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지원단』전담부서 신설
- 지역개발 가속화에 맞추어 도시건축과를 『도시과, 건축과』로 분리
- 공단조성업무 전담을 위해 지역경제과에 『공단조성담당』신설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보호과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환경사업소』를 신설 (위치 : 사동동 158번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폐지 ⇒ 체육지원단에 통합 (사무실 현행 유지)
- 종합사회복지관 폐지⇒사회복지과에 통합(사무실 현행 유지)
- 문화예술회관 폐지 ⇒ 문화관광과에 통합(사무실 현행 유지)
- 읍 : 담당명칭 변경(사회담당 ⇒ 주민생활지원담당)
- 면 : 담당명칭 변경(재무담당 ⇒ 주민생활지원담당)
- 동 : 주무 폐지 ⇒ 총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국내품종 '설향' 딸기 수확 한창 서울 등 수도권에 주로 판매되고 있는 '설향' 딸기 수확하느라 일손이 바쁜 사남면 초전리 윤병오씨 딸기농장. 올해 처음 설향을 재배하기 시작한 윤병오씨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는 모든 비닐하우스에서 설향을 재배할 것"이라고 한다. 설향은 일본 품종인 '장희'를 대체할 국내품종으로 로열티 지급이 필요 없으며 크거나 맛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중인 품종이다. <사진/글 박동진>

삼천포대교 - 초양도주차장 개장

시는 지난12일 창선·삼천포대교 중간지점인 초양도(늑도 동 477번지) 동편 일대에 4,667㎡ 규모의 주차장을 개장,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창선·삼천포대교가 지난 2003년 4월 28일 개통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는 구간인 삼천포대교에서 초양도까지의 시·종점 직접인 초양도에 대형버스 6대와 승용차 59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 소매점을 두루 갖춘 주차·휴게 시설을 개장했다.

지난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대상'에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는 평소 이 곳을 찾는 관광객과 일부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삼천포대교와 초양도 구간을 산책함으로써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되어 왔다. 초양도에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두었지만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차·휴게시설의 설치요구를 받아왔던 곳이다.

이에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이 곳에다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키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지난해 봄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총 사업비 14억여원을 투입하여 잔디블록 주차장 등 친환경적인 주차장과 남·여 화장실(장애인 포함), 관리실(소매점)을 조성했다.

더욱이 초양도 서쪽부본선 시가 대규모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봄이 되면 많은 사람의 방문이 예상되어 초양도주차장(동쪽)과 유채꽃밭(서쪽)을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오갈 수 있도록 초양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목재데크 등 포토존을 설치하여 창선·삼천포대교 구간 중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사진촬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창선·삼천포대교는 사



장교 형식의 삼천포대교(436m, 대방동·모개섬)와 종로식 아치형의 초양대교(202m, 모개섬·초양도), P·C BOX형의 늑도대교(340m, 초양도·늑도), 하로식 아치형의 창선대교(340m, 늑도·창선도), P·C 빗형의 단향교(150m, 창선도 내) 등 각기 다른 5개의 교량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바다와 접점이 떠있는 모개섬, 초양섬, 늑도, 창선도 등을 연결, '다리밟기놀이'가 자연스럽게 성행하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중간지점인 초양도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사 4월 입주 예정

시는 지난 1995년 도농통합시 출범 이후 옛 삼천포시와 사천군 양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화합과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2004년 9월 사업비 434억원을 투입하여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일대 69,432㎡(21,003평)상에 건물면적 18,491㎡(5,593평), 지상 8층 규모의 통합신청사 건축공사에 들어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동안 한국토지공사 추진하는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있던 신청사 진입도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공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지난해 12월 진입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됨에 따라 진입도로 건설공사와 신청사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4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개청되면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 통합 11년 만에 명실상부한 통합청사에서 전 직원이 함께 근무하게 되고, 시민들도 양 청사를 이용하면서 불편하였던 점들이 모두 해소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2007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3월 8일(목)부터 15일(목)까지 8일 동안 삼천포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고등부, 일반부, 여자부로 경기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태권도 선수 및 지도자, 선수가족, 임원 등 4,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06 전국종별태권도대회와 제29회 경남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번엔 전국종별태권

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태권도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엔 개최하는 전국 종별태권도대회와 사천시는 물론 전국의 태권도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사천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친절한 손님맞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2007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고등부, 일반부, 여자부)

2007. 3. 8(목) ~ 3. 15(8일간)

삼천포체육관

- 주최 : 대한태권도협회
- 주관 : 경남태권도협회
- 후원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체육회, 사천시태권도협회

■ 행사내용

개최식	2007. 3. 8(목) 11:00(예정) / 장소 : 삼천포체육관
경기일정	2007. 3. 8(목)~3. 15(목) 8일간 / 장소 : 삼천포체육관 / 종목 : 체급별 겨루기(고등부, 일반부, 여자부)
폐회식	2007. 3. 15(목) 15:00 / 장소 : 삼천포체육관 / 내용 : 시상식 및 폐회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을”

현열하고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와룡문화제' 시민과 함께!

5월 3일부터 나흘간 펼쳐지는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축제의 한마당



신록이 깊어가는 오월에 우리고장 최대의 문화예술축제인 '와룡문화제'가 12돌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 제12회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김수영 사천시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동안 사천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사천시 일원에서 와룡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 와룡문화제 기간 중에는 어린이날도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와 함께 가족나들이 나온 시민들에게는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열립·공연·경연·전시·기획 체험행사, 문화제 시연, 기타 부대행사를 통해 참여하는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칠 것이다.

사남 죽천천 하천부지 시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 향촌동 고성경계에 도로경관 조성, 도시 이미지 개선

시가 특색 있고 차별화된 시민휴식공간과 도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방치해 오던 죽천천변 하천부지(넓이 1,600㎡ 길이 500m)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5대의 차량을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막 파고라 2동, 각종 벤치 등 편의시설과 5종의 야외 체육시설, 하천과 어울리는 산책로와 각종 조경수를 식재한 시민휴식공간을 지난 1월 말 조성했다. 봄이나 여름철을 맞아 하천을 찾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안성맞춤이다.

또한 시는 향촌동 고성경계(삼재 ~ 해수욕장 입구) 약 1.1km 구간의 도로변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배롱나무, 홍가시, 영산홍, 한철 등을 식재, 사계절 꽃을 피울 수 있는 차별화된 도로 경관을 지난 20일 조성 완료함으로써, 시 관문의 쾌적



한 도시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 한편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주문해안도로변에 특색 있는 친수공간 2개소, 신수도 대구마을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쉼터 4개소를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삼천포대교 주변(초양·늑도) 유휴지 71,050㎡(2만2천평)에 유채를 파종함으로써 다가오는 봄이면 유채꽃과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객에게 자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3억원의 사업비로 사천I·C 주변 가로경관을 획기적으로 조성하고 정비하기 위해 기본 용역을 마친 가운데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등 미래 도시기반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천 아카데미' 시민 관심 증가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고, 시민들의 교양향양과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천아카데미가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제17강은 얼굴이 보이면 경영이 보인다며 '성공을 부르는 인상관리'라는 주제로 모든이의 대명사인 얼굴(인상) 경영에

대한 강의가 계획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관심이 높다. 또한 제18강은 오늘 날 인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으면서 21세기 사망률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암'에 대한 치료와 예방법, 돈과 명예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소개하고 암을 이기는 방법을 강의한다.

제17강 3월 15일 주선희 교수의 "성공을 부르는 인상관리"



제17강은 오는 3월 15일(목) 오후 2시 사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주선희 교수는 부산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문학 석사, 경희대학교 사회학 박사, 인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3년 동아일보에 '주선희의 인상보기 희망하기'를 33회 연재, 중앙일보에 '주선희의 성공 인상학'을 33회 연재하였고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명강사 사이트에서 조

회수 1위를 차지하였다. 현재 원광디지털대학교 얼굴 경영학과 학과장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운영위원·MBC·현대·삼성 등 대기업 임원 채용 면접자문, 주부대학 전국 순회 강자, 벤처기업 투자자문화사 고문, 한국도교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얼굴경영' 등이 있으며, 국내 인상학 1호 박사로서 최초로 제도권 내에서 얼굴경영학과를 개설하여 후진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제18강 4월 19일 백남선 의학박사의 "암! 알아야 이긴다"



제18강은 오는 4월 19일(목)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백남선 박사는 서울대의대 외과학박사를 취득하고, 국군수도통합병원 암 연구실장, 영일병원 외과과장을 역임하였다. KBS, MBC, SBS, 메디 TV 등에서 암에 대한 특강을 80여 차례 실시하였다. 현재 원자력병원 외과 2과장, 한국유방건강재단 상임이사, 대한암예방학회 부회장, 한국유방암학회 회장,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이사, 대한암

협회 부회장, 대한 암학회 부회장, 대한임상 암예방학회 회장, 아시아 유방암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암의 모든 것', '암 예방의 길잡이', '암 알아야 이긴다' 등이 있으며, 웰빙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 따라 '암'에 대한 좋은 강의와 시민들의 관심이 예상되고 있다.

※ 문의는 총무과 ☎830-4270

2007년을 시민 정보화 추진 역량강화의 해로 선정



시는 2007년 정보화추진 목표를 『시민 정보화추진 역량 강화의 해』로 정하고 전시민이 정보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정보화 낙후지역 이동교육

현대 디지털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정보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정동면 고읍단감

정보화마을(위원장 강두영, 지도자 이영섭)에서는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PC를 10대 지원받아 마을주민과 이웃들에게 정보화 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동 고읍단감 마을은 2003년 2차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이웃마을로 확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지금은 정동면 학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화격차 해소에 기여한

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읍면동지역 시민정보화 상설교육장 운영

정보화교육에 접근이 어려운 주부, 노인층, 농어업인, 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시민 누구나 컴퓨터무료교육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시민정보화 상설교육장을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2천7백만원을 대폭 편성하여 시민 4,5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정보화교육과 연계하여 최근 우리시에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동지역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1개반을 개설하여 컴퓨터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외국인컴퓨터 교실에 좋은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동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2개반을 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정보문화추진을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검색대회 및 정보화경진대회를 상·하반기에 걸쳐 개최하는 등 시민정보화능력 배양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간 : 2007. 3. 14 ~ 4. 3
 - 장소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간 : 2007. 3. 14 ~ 4. 3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거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830-4307) 및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엠블럼 디자인 공모

민속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의 우수성과 참된 가치를 되새기고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활용될 엠블럼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2007년 2월 일 사천시장
- 행사 개요
 - 가. 행사명 :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나. 행사기간 : 2007. 9. 12 ~ 9. 16(5일간), 예정
 - 다. 장소 : 사천공설운동장
 - 라. 주최 : 문화관광부, KBS, 경상남도, 사천시
 - 마. 주관 : 2007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 바.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국문화원연합회
 - 응모 자격 : 개인, 단체, 대학, 전문디자인 업체 등
 - 작품 접수
 -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07년 2월 12일 ~ 3월 12일 18시까지
 - 나. 작품내용
 -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의미와 예술성, 창의성을 갖춘 엠블럼
 - 사천발전이 펼쳐진 해양 문화의 도시, 사천의 이미지를 함축
 - 진주·삼천포2차농아, 가산오광대, 마도갈매야소리
 - 다.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조)
 - 제안서(A4) 15부 및 전자파일(CD) 14
 - 엠블럼(로고 및 설명서 포함) 14
 - 기본 엠블럼(로고 포함) 디자인 1매
 - 규격 : A3(297cm x 420cm)용지로 컬러 출력물 제시
 - 라. 접수장소 : 사천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문화관광부 예술국 전통예술팀
 - 마. 접수방법 : 직접접수(인원) - 우편이나 FAX접수 불가
 - 바. 제안서 15부 및 기본 엠블럼은 심사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자의 성명(업체명), 기타 제출자를 알 수 있는 표기나 표시 등 기재 불가
 - 재출원 서류는 심사결과 당선작은 반환치 않고 사천시에 귀속됨.
 - 낙선작은 당선작 발표일 후 10일내 회수하지 않으면 사천시가 임의 처분
 - 심사 및 결과발표
 - 가. 심사위원은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나. 심사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 작품심사 기준 및 방법에 의한 다. 당선작은 심사결과 최우수 작품이 없으면 별도방법으로 결정 라. 심사결과 발표는 2007.3.30(예정) 당선자 개별통지 및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
 - 5. 시상계획 당선작 1점 : 상금 3,000,000원
 - 6. 기타사항
 - 가. 최우수 선정작품은 당 행사 사용은 물론 사천시 행사에 사용하고 이에 따른 사용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사천시에 귀속 함.
 - 나. 당선작에 대하여는 차후 본 행사의 전반적인 홍보물로 응용하여 사용 예정이며 당선작 결정 후 사천시에서 요구하는 25가지 홍보물 시안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 홍보물 시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 계획
 - 다. 문의처 : 사천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 830-4232 문화관광부 예술국 전통예술팀 ☎(02) 3704-9563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주제어 공모

민속고유의 전통 민속예술의 우수성과 참된 가치를 되새기고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활용될 주제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2007년 2월 일 사천시장
- 행사 개요
 - 가. 행사명 :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나. 행사기간 : 2007. 9. 12 ~ 9. 16(5일간), 예정
 - 다. 장소 : 사천공설운동장
 - 라. 주최 : 문화관광부, KBS, 경상남도, 사천시
 - 마. 주관 : 2007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 바. 후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전국문화원연합회
 - 응모 자격 : 개인, 단체, 대학, 전문디자인 업체 등
 - 작품 접수
 -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07년 2월 12일 ~ 3월 12일 18시까지
 - 나. 작품내용
 -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의미와 예술성, 창의성을 갖춘 주제어
 - 사천발전이 펼쳐진 해양 문화의 도시, 사천의 이미지를 함축
 - 진주·삼천포2차농아, 가산오광대, 마도갈매야소리
 - 다. 제출서류 : 제출자의 주소, 성명등 신분을 명시하여 A4용지로 작성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참조)
 - 라. 접수장소 : 사천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문화관광부 예술국 전통예술팀,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 마. 접수방법 : 직접접수, 우편접수(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접수
 - 바. 제출원 서류는 심사결과 당선작은 반환치 않고 사천시에 귀속됨.
 - 낙선작은 당선작 발표후 10일내 회수하지 않으면 사천시가 임의 처분
 - 심사 및 결과발표
 - 가. 심사위원은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나. 심사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 작품심사 기준 및 방법에 의한 다. 당선작은 최우수작 1점, 우수작 1점 결정 라. 심사결과 발표는 2007.3.30(예정) 당선자 개별통지 및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
 - 5. 시상계획 최우수작 1점 : 상금 30만원, 우수작 1점 : 상금 20만원
 - 6. 기타사항
 - 가. 최우수 선정작품은 당 행사 사용은 물론 사천시 행사에 사용하고 이에 따른 사용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사천시에 귀속 함.
 - 나. 문의처 : 사천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 830-4232 문화관광부 예술국 전통예술팀 ☎(02) 3704-9563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모

사천시장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사천시 조례 제 733호)를 2007년 2월 12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그동안의 행정지시내용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 반영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재래시장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 유통점 입점제한 (20% 추가 허용)
-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를 하한 조정 (70% 이하 → 90% 미만)
- 관리(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미만의 소규모공방 (비 공해업종) 제한적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내용 수정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규정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지난 2006년도 제2회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2006.11.21)에서 원안 가결되어 사천시의회 본회의(2007. 1.31)의 결정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조례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열람할 경우 "차지법규정보 시스템(http://www.laib.go.kr)"이나 "경상남도 토지종합정보망(http://lmis.gyeongna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서비스에서 해당필지에 대한 행위제한내용으로 조례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알림방

금년 사회복지 예산 87억 증가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시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해 대비 19% 증가한 53,64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금년 사천시의 총 예산은 3,312억원으로 이중 사회복지 예산은 53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세 예산의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장애인 분야에서 국민 기초수급자중 1~6급 장애인에게 1인당 2만~6만원 지원하던 장애 및 장애 아동 부양 수당을 차상위 계층 도 포함하여 3만~20만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15억원 지원하게 된다.



▲ 장애투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희망이 자라는 열린학교 입학식



노인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8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장수수당을 신설하여 장수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50세의 사회활동이 가능한 50명의 인원을 9개월 동안 2억 8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을 도와 주는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비 부담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상위 중증 노인에 대하여 4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차상위 중증 노인이 가정과견봉사원, 주간보호시설, 자활후견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선택하여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20만원씩 55명에게 연간 1억2천만원의 지원하게 되며 경로당 운영비도 1개소에 연간 52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을 인상, 72만원을 사천시 경로당 292개소에 지원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 상담 및 긴급 구조 등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 6천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지원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 곳에서는 학업중단, 폭력, 성매매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모 또는 요보호 아동의 후원자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자선형성 제도인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데 이들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는 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 훈련비용, 주거 마련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시에서는 81명의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1인당 3만원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10명의 아동 복지 교사에게 1인당 90만원의 인건비를 9개월간 지원하여 지역아동 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기초생활 분야에서는 2007년도 최저 생계비는 지난해에 비해 3.0~4.8%를 인상,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다소나마 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현충시설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 12억 2천만원과 곤양, 곤명, 서포 등 서부 지역 주민을 위한 서부사회복지관 건립비 등 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튼튼해지고, 기초노령연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민연금 개정방안

- 연금보험료와 연금지급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기금고갈 걱정을 덜어 드리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39%pt씩 높여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2009년 ~ 2018년)
-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60%기준에서 2008년

- 부터 평균소득액의 50%기준으로 조정합니다.
- 국민분별을 줄이고 연금혜택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방안

-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약300만명의 노인분들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 '08년 매월 약8만9천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소득상승에 따라 매년 인상)
- 2008. 1월부터 70세 이상, 2008. 7월부터 65세 이상인 분 현재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공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번)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전에 기여하며,

제10기 경남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생 모집

세계화·정보화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제10기 경남여성지도자과정 위탁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 120명(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각 30명)
- ◆ 지원자격 : 2007. 1. 1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30~60세의 고졸이상 여성으로서 시장·군수 추천을 받은 자
- ◆ 교육기간 및 시간
 - 교육기간 : 2007. 4월 ~ 11월(8개월)
 - 교육시간 : 총 130시간 이상(위탁 대학교별 특성에 따름)
- ◆ 1인당 교육비 : 100만원(교육생 부담 30만원)
- 경상남도 지원 50만원, 대학부담 20만원, 교육생 30만원
-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7. 2. 2 ~ 3. 10
 - 교부 및 접수처 : 시청 사회복지과 (☎ 830-4359)

희망의 전화 "129"

도움이 필요하세요? 지금 희망의 전화 ☎129를 누르세요

▶ 희망의 전화 129번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소득 지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장애인·노인·아동 등을 위해 마련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그리고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지원과 같은 의료관련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등 보건복지관련한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아 보실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표번호입니다.

따라서,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하시면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긴급지원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365일 24시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 129는 불이 났을 때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112에 신고하시는 것처럼, 본인이나 이웃 중에 아프고 힘든 분이 있으면 129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 희망의 전화 129는 보건복지 관련 모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보장 상담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활사업, 의료급여지원, 국민연금제도 및 긴급지원에 관한 업무(주간) 등
- 복지서비스 상담반 :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설립 및 운영, 푸드뱅크 이용 방법, 의사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사회복지사 자격 및 관리, 장애인·노인·아동복지사업, 장사업, 인구 및 출산정책(출산지원), 모자보건사업 등
- 건강생활 상담반 : 금연사업, 국민영양사업, 희귀난치성 질환 및 암 치료비 지원, 예방접종, 정신보건 및 구강보건사업,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시험, 의료분쟁, 공공보건, 혈액정책, 생명윤리, 한방정책, 건강보험 등
- 긴급지원 상담반 : 긴급지원(야간, 휴일), 아동·노인학대, 자살예방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상담
-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만 누르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때도 그냥 129만 누르시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민은 시내전화 요금만 부담하시고 나머지 요금은 보건복지부가 부담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3월은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폐기물소각시설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청정기술 및 저공해 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개발비로 사용되오니 기간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부과기간 : 2006. 7. 1 ~ 12. 31.
- 납부기간 : 2007. 3. 16 ~ 3. 31.
- 납부의무자 :
 - ◆ 시설물분 : 2006. 12. 31. 현재 사업장의 연면적 160㎡이상 건물소유자
 - ◆ 자동차분 : 2006. 12. 31. 현재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는 소유기간별 구분하여 부과됨.
- 납부방법
 - ◆ 은행방문납부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이용
 - * 당기분 고지서는 4월 30일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며, 5월 1일부터는 신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터넷지로납부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탁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
 - 조회방법 :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 번호)
- 이의신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055)830-4411(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말까지 시행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1. 시행기간 : 2006. 1. 1. ~ 2007. 12. 31 (2년간)
2. 적용대상 및 범위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동지역 :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전 토지
 - * 개별지가는 확인서 발급신청 당시의 지가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부동산
3.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 신청서2부
 - 보증서1부 토지소재지의 법정 동·리 단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상 등록된 인감날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미등기시 미등기열람조서1부)
 - 기타관련서류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취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
4.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인이 서류접수
 - 해당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 확인서 발급신청 2월 공고
 - 공고기간 만료일 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발급
 - 확인서발급 신청서에 의거 등기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민원지적과 (☎ 055-830-4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합시다.

- 적십자회비모금 납부기간 연장 : 2007. 3. 12(월) ~ 3. 31(토)
- 각 세대별 지료용지 재교부 : 미납자 납부용지 재배부(3.5~3.10)
-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 24시간 납부 가능
 - ① 시중은행 및 전국 7,500여개 편의점에서 납부가능
 - ②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개인별 지정계좌 부여 - 지료용지에 기재되어 있음)
- 사천시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적십자회비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 우리 이웃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주세요!

내 땅... 토지이용계획... 언제 어디서나 열람 가능

사천시는 2007년 1월부터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승인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인터넷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열람서비스는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메인페이지 좌측중앙에 "자주 찾는 정보"의 "토지이용/개발공시지가"를 통하거나 경상남도 토지종합정보망(http://imis.gyeongnam.go.kr) 전국 토지정보 열람(http://www.onnara.go.kr)에서 무료로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서비스되는 정보 중에는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용도지역에 관련한 법령내용과 제한사항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열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자료의 오류나 보정해야 할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기재내용을 임의 조작하여 출력할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된 서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법정계량단위 (㎡, g) 를 사용합시다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1961년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계량단위가 실생활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평.톤.1인분 등 비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계량단위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정계량단위(㎡, 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보증이며 올 7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소에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시민들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생활화와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여 사업장 영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정계량단위 표시
- ▶ 평 : ㎡ (제곱미터) 로 표기 사용
 - ▶ 큰, 관, 온스 : g (그램), kg (킬로그램) 으로 표기 사용
 - ▶ 1인분 : g (그램) 으로 표기 사용
 - ▶ 톤 : g (그램) 으로 표기 사용



자연재해예방 포스터·표어 공모

제14회 방재의 날(5. 25)을 맞이하여 자연재해예방 포스터·표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재능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 관 : 사천시
2. 후 원 : 경상남도, 소방방재청
3. 공모부문 : 초등부 / 중·고등부 / 대학·일반부
4. 공모분야 : 포스터, 표어
5. 출품규격
 - 포스터 :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 4절 또는 B3용지(515X364)크기로서 공모주제에 맞는 가시적인 평면 표현물 1매 및 작품설명서
 - 표어 : 25자 이내로 구성
6. 작품주제
 -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내용
 - 자연재난의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재난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 등
7. 공모기간 : 2007. 3. 01 ~ 3. 23
8. 작품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사천시 재난안전관리과 및 전 읍면동사무소) 우편접수처 : (664-804)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 사천시 재난안전관리과
- * 우편접수는 수신자 수령이 확인되는 등기우편 송부 조치 및 담당자 수령 필수 확인 요망
9. 시상내용
 - 시 : 응모작품에 한하여 시 자체 심사
 - 최우수작품 1점씩(포스터·표어)은 도에 추천
 - 중앙 : 16개 시·도에 추천된 포스터 및 표어 1작품씩, 총 32작품 중
 - 행정안전부장관상 : 분야별 최우수작 16작품(포스터 8, 표어8)
 - 소방방재청장상 : 분야별 우수작 16작품(포스터 8, 표어8)
 - * 우수작품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게시
10. 기타사항
 - 당선작 발표는 개별통지하고,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천시에 귀속되며 제출된 작품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재난안전관리과(830-8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 공모

사천시민의 공동체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천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천시 브랜드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사천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2. 응모기간 : 2007. 3. 1 ~ 3. 30. 18:00까지
 3. 슬로건 형식 : 구호형태의 짧은 국문 또는 영문문구
- | | |
|------------|---|
| 브랜드 슬로건 예시 | Dynamic Korea(대동민국), Hill Seoul(서울), Ulsan for You(울산)
Yes! Tokyo(동경), ION.Y(뉴욕), Asia's World City(홍콩),
City of My Dreams(오스트리아 빈), Surprising Singapore(싱가포르) |
|------------|---|
- * 각종 기호 사용가능, 한글은 영문표기 가능하여야 함.
4. 슬로건 구성 중점
 - 사천에 대한 애정심을 길러주고 첨단항공우주와 해양관광산업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사천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국내·외에 사천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표현
 5. 응모방법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의 접수사천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점 배너 접속 응모 (서식 다운로드하여 우편, FAX 제출가능)
 - 응모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미 반드시 기재
 - 동일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먼저 접수된 공모작을 우선하며, 국·내외 도시 및 기업체 등의 슬로건과 동일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함
 - 응모는 1인 1점으로 한정하며, 2007. 3. 30.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6. 당선작 발표 : 2007. 4월 중 (사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당선인이 없게 경우 당선작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7. 시상내역 : 당선작 1편 100만원 / 가자 3편 각 30만원
 8. 기타사항
 - 선정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사천시에 귀속됨.
 - 선정작은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수상 이후라도 수상작이 국·내외 타 도시 또는 업체 등의 슬로건과 동일하여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수상을 무효로 하고 상장 및 시상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함.
 9. 문 의 처 : 사천시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 055-830-4201)

의원정례 간담회 개최

사천시 의회 의원은 지난 2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한 방안과 의원들의 해외 연수 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토론에 나선 이정희 의원은 활기찬 의정활동의 방안으로 의원 의정 활동시 빠짐없는 출석과 시

간 지키기를 건의하고,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시행하지 못한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견에 대하여는 선진 지방의회의 지방자치와 외국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실질적인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시의회가 달라지고 있다



기초의원 이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의원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제4대 명예직 의회에서는 정례회나 임시회 시 회기 중

의원이 출석할 경우에만 회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회기가 없는 평일에는 의원 사무실에 출석하는 의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기초의원 이 유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회기가 아닌 평일에도 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에 출근해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주민숙원사업해결 시 회기 중

자 사업의 추진 사항 등을 시장(서면)질문을 통하여 꼼꼼히 챙기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관광성 외유라는 이유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지난해에는 2천 5백만원의 의원 해외연수비를 반납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했다. 상임위원회의 활기찬 운영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상임위원회별 모임을 갖고 위원회의 단합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교환 등 활기찬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동참



관내 복지시설 등 위문 격려

사천시의회의원들은 지난 2월 12일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우리 이웃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합심원, 삼소원, 장수원, 신애원등 사회복지시설과 환경미화원, 도로 수로원, 나환자 정착촌 등을 방문해 사과, 배, 멸치 등 5백여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보내기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동참했다.

의회동정

홈페이지 새 단장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사천시의회가 홈페이지를 개편해 새롭게 단장했다. 새롭게 단장된 시의회 홈페이지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원별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언제나 알 수 있도록 의원 개인별 사이트를 개설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천시의회 홈페이지는 www.councilhome.sacheon.go.kr로 들어가면 된다.

제112회 임시회 개최

사천시의회는 오는 3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11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6건의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며, 지역여론청취 및 의정자료수집을 위한 상임위활동과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의원들의 시정질문도 있을 예정이다.

부천시의회의원 우리시 의회 방문

부천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의원 11명이 지난 2월 22일 우리시 의회를 방문했다. 우리시의회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부천시의원들은 분회의와 상임위원회 운영실태를 설명 듣고 관내 진사지방산업단지과 창선-삼천포대교, 삼천포어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견학했다.

독자투고

일상에서 찾는 소박한 행복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풍부한 돈일까? 거대한 권력일까? 만방에 떨치는 명예일까? 그 해답은 인생의 주인공인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하루 아침에 주어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도 얻을까 말까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늘의 별을 따는 이치와 같다고 할까.

보통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서 소박한 일상을 영위하며 사는 것이다. 부모형제 안녕하고 남에게 부끄러움 없으며 아이들 잘 크면 그것이 행복이다. 의식주 해결하고 이웃과 수다를 떨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데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찾아 동분서주한다고 행복이 보

장되지 않는다. 정상에 서면 오히려 허탈감을 느낄 지도 모른다.

주어진 처지나 여건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꿈꾸자. 명심보감의 心安茅屋穩 性定菜羹香(심안모옥은 성정채경향 :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안정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이란 말을 되새기면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내 가족, 나의 일이 행복의 바탕임을 깨달으면 삶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누구나 어려서 읽은 동화책 메테리링크의 <파랑새>를 기억할 것이다. 주인공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니지만 못 찾고 집으로 돌아와서 낙심에 빠져 있는 데 집에서 기르는 새가 파랑새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행복이

나 기쁨은 산 너머 바다 건너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너무 거창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과 한탄만 겪게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도 자연을 벗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린 모습이 옛보인다. 지은이가 밝히지 않은 옛시조를 한 수 보자면 "십년을 경영하여 초가 삼 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한 간 청풍(淸風)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을 들었 데 없으니 돌러두고 보리라."라고 읊었다. 이 얼마나 낙천적이고 유유자적한가. 주변의 일상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때 만수무강의 길은 사나브로 열릴 것이다.

/이옥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봄 단상

[동무들이 오너라 봄맞이 가자/ 너도 나도 바구니 옆에 끼고서/ 달래 냉이 씹바귀 나물 캐오자/ 중다리도 높이 떠 노래 부르네]

어려서 즐겨 부르던 동요이다. 봄은 여인의 옷차림에서 온다는 말처럼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고 봄처럼 산으로 들로 나물 캐러 다닌다. 벼들강아지는 물이 오르고 개나리 진달래는 화사한 꽃봉오리를 띄우며 아지랑이는 너울거리면서 환상의 세계를 연출한다.

봄이 되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활기가 넘친다. 운동장에서 혹은 동네 광장에서 땅따먹기, 순래잡기, 비석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뜬으로 나온 열

소나 강아지는 팔짝거리며 봄기운을 마음껏 들이켜 기지개를 펼친다. 진달래 꽃잎을 따서 꽃지집을 부쳐 먹고 파릇한 쑥으로 쑥떡이나 쑥밥을 해 먹으면 향기가 그윽한 계곡방 문몸은 봄의 원기를 받아 힘이 솟을 것이다.

시골에서는 봄의 기운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데 도시에서는 회색 빌딩과 우중충한 아스팔트로 인해 계절의 감각을 느끼기가 어렵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고나 할까? 기껏 젊은 사람의 옷차림이나 언론편체를 보고 봄이 왔구나 하고 느낄 뿐이다.

그런데 요즘은 시골에서도 봄의 활기가 예전 같지는 않을 듯하다. 젊은이는 다 떠나버리고 노인들만 겨우 고향을 지키며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니 먼 후일엔 누가 시골에 남아 고향의 일화를 연술할 수 있을 지 염려스럽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

데 도시에서는 오염된 흙만 있을 따름이다. 나무와 풀이 썩어 있는 시골의 향기로운 흙을 만지며 사는 시골생활은 결코 만만찮아 보인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인프라의 미비로 시골의 현실은 젊은층에게 매력 없었다.

인간의 생활이 질적 양적 변화가 없어도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며 오묘한 이치를 보여 준다. 아직 꽃샘추위가 날을 세우지만 계절은 봄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에서는 신입생의 목소리가 활력이 넘치고 가로수는 혼탁한 매연 속에서도 새싹을 틔우고 있다. 파스한 햇살 아래에서 날개를 퍼덕이는 병아리의 모습이 그림고 양지 바른 곳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와 귀여움이 연상되는 봄철에 겨우내 움츠렸던 귀태나 목은 때는 시원히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박동진 · 부산시 사상구

사천청실회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 행사개요
-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해진 한해 사천시의 무한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비는 민속놀이로서 97년도에 이어 11번째로 실시되며, 사천앞뜰 답작지에 달집을 짓고 소지장에 액운을 적어 이를 태우면서 재난을 멀리하고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행사.
- 일시 : 2007년 3월 4일(일) 18:00
- 식전행사 오후5시
- 장소 : 사천앞뜰(사천읍)
- 참석대상 : 사천시민
- 행사주최 및 주관 : 사천청실회
- 행사 진행 계획

시 간	세 부 계 획
17:00~18:00	식전행사 풍물패 · 옛고을놀이패(고을) · 사천읍자치센터(스포츠클ubs)
18:00~19:00	기념식 및 점화
19:00~	복우회원 달집 주변 사물놀이(시민, 전 청·홍심, 복우회원)
19:40~	폭죽 2부행사
19:50~	한민(MBC음악교실진행자)과 함께 -홍심회원노래자랑 시민참여 -경호체육관 태권도시범 -에어리빅(비타민헬스클럽)

삼천포중앙로타리클럽 어려운계층 온정의손길



삼천포중앙로타리클럽(회장 정화길, 58세)은 지난 2월 6일 관내 독거노인, 노인가장가구, 모자 가정 등 생계곤란가정에 대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였다.

지원세대는 발리동 배종도 외 1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5만원 상당 총4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삼천포중앙로타리클럽은 사회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이 힘들고 고생하시는 이웃들을 찾아 미력하나마 조그만 보탬을 주기 위하여 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정화길 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적은 돈으로 여럿 고루 혜택을 드리다보니 약소하다는 말과 함께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오래도록 건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항공과학 영재교실



2007 항공과학영재교실이 사천시 지역혁신협회의 회와

시정 밖 소식

한국폴리텍항공대학 주관으로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2회에 걸쳐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사천시 관내의 초등학교생 80명과 중학생 80명을 각 학교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은 3일 동안 비행원리교실, 사이버조종교실, 항공기 체험교실, 글라이더 제작교실과 더불어 항공우주체험장비 탑승을 통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이론 및 체험학습을 수행했으며, 항공우주박물관 견학학습을 통하여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꿈과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게 되었다. 2007 항공과학영재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후 우리나라 항공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리라 확신한다.

어린이 성교육 도서 전시로 인기



삼천포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기적인 주제별 도서전시의 하나로 지난 2월 1일부터 한 달간 '어린이 성교육 도서전시'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부족한 성교육 기회를 책을 통한 간접적인 교육으로 보완해 주고, 평소 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물어볼 기회가 없었거나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한 아이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다.

특히, 아이의 생리적인 발달수준과 성에

대한 공금증을 가장 잘 알지만 적절한 방법을 몰라 실시하지 못했던 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생학습강좌 회원 모집

삼천포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선용 및 자기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상반기 평생학습강좌 회원 모집 중입니다. 전화, 방문 접수 및 홈페이지(www.scpib.or.kr)로 인터넷 접수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수강신청
- 1) 기간 : 2007년 2월 10일 - 3월 4일
- 2) 방법 :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접수 (신규회원 우선 접수 · 선착순 모집)
- 3) 장소 : 도서관 어린이자료실 · 종합자료실

강좌명	대상 및 인원	회수	기간	요일 / 시간	내용
종합	20세 이상의 여성	주 1회	3월-6월	매주 목요일 오전10시-12시	한지, 압화, 클레이
동화구연과 창작활동	초등 1-3학년	주 1회	3월-5월	매주 수요일 오후3시-5시	동화구연 및 만들기(클레이)
생활역력 교실	55세 이상의 남녀	주 1회	3월-6월	매주 금요일 오전10시-12시	명리학
문제 창작 교실	20세 이상의 남녀	주 1회	3월-5월	매주 화요일 오전10시-12시	시 · 수필 이론 및 창작

* 단,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함. 어린이 동반 불가

■ 수강료 : 무료 (재료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 「동화구연과 창작활동」은 월 재료비 5천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835-4436~7로 문의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시사 어려운 이웃에 온정 베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사천시사 사회봉사단(단장 이병수)은민족의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난 2월 9일 불우한 노인 시설단체인 사천시 백천동 샘터교회 및 저소득 노인 재가 봉사단체인 용현면 송지리 행복나눔을 방문하여 추운겨울을 어렵게 지내는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쌀 및 현금봉을 각각 전달하였다.

또한 사회봉사단은 관내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6세대를 지정 자매결연을 통하여 매월 봉사단이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봉사단은 어렵고 외로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범죄 사전에 예방합시다

1. 차량절도 조심
최근 차량절도를 차량내부에 방치한 허점을 이용해 노상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죄대상으로 한 승용차량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니 차량소유주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2. 선이자 빙자 대출시기 사전
대출받기 위해 생활정보신문을 보고 시민들이 관련 업소에 전화상담을 하면 해당업소에서는 선이자를 입금하면 즉시 대출해주겠다고 하므로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해당업체에 선이자를 계좌송금하면 업체에서는 대출금은 지불치 않고 선이자만 받아 챙기는 수법의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동정

1. 재경 사천향우회를 10년째 이끄는 문갑석 회장



▲ 서울사진전 청계광장 전시장을 둘러보는 문갑석 회장(왼편)

언제나 자신감 있고 목소리가 우렁차다. 직접 만났을 때도 그러하거나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30대 젊은이와 대화하는 것 같다. 간혹 골프를 치기도 하지만 건강관리로 걷기를 위주로 하여 36년생인 우리 나이로 72세인데도 정열과 의욕이 넘친다. 그런 덕분에 상대방도 덩달아 힘이 솟게하는 묘한 기운을 전달하는 분이다. 재경 사천향우회 문갑석 회장은 우리고향 사천시 서포면 출신이다. 그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고 그 시대는 전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생업과 직장을 찾아 나섰던 시절이다. 그 중에서 문 회장은 청운의 꿈을 갖고 대도시로 나와 이왕에 사는 인생인데 어디 한번 해 보자며 갖은 고생과 어려운 난관을 수 없이 겪고 이겨 낸 입지적적인 인물이다.

일찍이 화물운송업에 투신하여 40세 나이에 서울화물자동차운송조합 이사장에 당선되었고 41세때 부터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 중앙회장을 3차례나 연임하면서 한국 화물운송업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지금은 한국에서 특수시멘트업체인 동양흥업(주), 동양운수(주) 그리고 중국과 합작사업인 한·중 세진 시멘트 합작회사를 운영하며 회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듯 국내외에서 사업을 일으켜 이미 성공의 성에 도달한 분이다. 이런 분 덕분에 더 많은 고향 젊은이들은 성공확신의 희망을 갖고 인생 대성의 길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업에 바쁜 몸인데도 재경 서포면향우회 초대회장과 3대회장을 역임하였고 수년전에는 재경 영남향우회 창립에 참여하였다. 현재는 재경 사천향우회 회장을 10여년째 맡고 있으면서 재경 향우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10년전 사천·삼천포가 통합시로 탄생되므로 향우들도 통합하는 의미에서 재경 사천과 삼천포 원로향우들을 모아 삼사회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 그는 갑석장학회를 통하여 고향의 후배들에게 장학사업을 하여 왔다. 그리고 출향인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에도 적극 나서서 전국자문위원에 위촉되어 있기도 하며 사천시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우리고향을 열심히 알리고 자랑하고 있다.

2. 출범 제6차연도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

- 6차연도 맞아 드리는 인사말씀 -
우리 43애향운동은 2002년 3월 24일 부산 금정산에서 출범하여 금년 2007년이 애향운동 출범 제6차연도에 들어섭니다. 그 5년간

의 활동 결과를 잠시 매듭짓고 넘어가기 위하여 오는 3월말경에는 [애향운동 5년사] 기념책자를 발간합니다.

이는 그 동안 참여와 후원을 하여 준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감사드리는 의미며 우리의 활동상을 자료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중의 1-2차연도에는 국민을 상대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면서 전국의 향우 동문들을 상대로 이 애향운동 취지를 이해시키고 알리 전국 향우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이 운동을 전파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4차연도 부터는 젊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홍보를 추가로 가동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매년 100만명 이상을 상대로 우리 사천시를 자랑하고 알리는 활동을 진행시켰습니다.

금년 6차연도부터는 추가 활동분야로 고향 지역의 중·고교생을 상대로 우리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을 인지시키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몇 년 후 상당수가 해외와 전국의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갈 이들에게 우리 고향의 자연경관이 한국 제일로서 그 수려함을 다시 알려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몇 훗날 이들이 출향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줄을 잇는 애향운동 역사가 세세손손 연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사천시민 그리고 전국의 향우 동문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속 가겠습니다.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 / 회장 천봉근

3.재경 서포향우축구회 신년회



▲ 2007년 신년 회기념사진

재경 서포향우회 축구회(회장 이종문)는 2007년 정해년에 1월 28일 (일) 낮 12시 서울대학교 학관단 운동장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모임에서 마련한 조촐한떡국 한 그릇씩을 나누어 먹으며 2007년 신년에는 모든 시합 때 서포 축구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몸을 풀었다.

【사천시보/단체,인물 소개를 위한 공지】

사천시민들과 부모 형제자매 동기 친구관계인 전국 출향인들의 생활과 활동상을 서로 알고 그들을 상호교류 소통시키고자 [전국향우동정]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선입된 향우회장, 동문회장 그리고 활동이 특별한 향우 등 지도적인 역할을 맡은 분들을 찾아 수시로 소개코자 합니다. 전국 각지의 출향인 여러분 주변에 활동이 특별한 향우 동문이 계시면 팩스(051)201-2694 / e메일: webmaster@43news.net 으로 추천 연락 주십시오.

/애향운동[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본부 · 기획홍보팀

각종세금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연체료는?

지난해 12월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이장들이 전달하던 각종 세금 고지서를 우체국과 계약하여 시법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아 몇 자 적고자 한다.

첫째, 동지역은 몰라도 우리 농촌의 실정은 모든 전달사항이 방송으로 행해지고 있고 또한, 집과 집 간의 거리가 멀게는 몇 Km씩이나 떨어져 있는 마을이 부지수라 일년이 가도 서로 얼굴 한번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태반이며, 둘째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맹을 깨우치지 못한 고령의 노인들이라 우체통에 들어 있는 고지서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있으며, 셋째로는 그로인하여 납기일을 넘기는 일이 허다하니 본인으로서는 과태료를 무는 손해로 우리시로서는 연체에 허덕이면서 우리 이장들에게 연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는 독촉이 뻔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우체통에 들어 있는 고지서를 확인조차 어려우니 아예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전달 받지 못했다는 시시비비가 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고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되면 우리 이장들이 전달하는 것보다 비용은 절반뿐이 들지 않는다는 단한가지 장점이 있지만, 대신 우리 이장들이 전달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인 1년 동안 만나지 못하는 주민들을 최소한 3개월에 한번씩 볼 수 있으니 문안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어디가 불편한점은 없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 좋으며 둘째문제인 문맹자인 노인들을 직접만나서 고지된 세금고지서를 이야기 해주어 그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어 좋겠고 셋째 문제인 그로인한 납기일을 넘기는 일이 없어서 본인은 과태료

를 물지 않아 좋고 우리시로서는 연체료를 줄일 수 있어 좋으니 다 함께 덕을 보는 셈이고 또한 시간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는 대신 담부를 해줌으로서 담부 실적도 올리는 셈이 되니 정말 일석삼조가 아니겠는가! 그 실례로 우리 이장들이 전달할 때는 대부분 먼거리의 주민들의 대신 납부실적이 50~60% 되었다는 게 그 대목을 잘 대변 해주는 실정이다. 그리고 굳이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그 고지를 전달하는 금액을 우리 이장들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리장단기금으로입금시켜 각종길·홍·사시와 단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읍·면·

리장들이 대부분 이라는 것만 보아도 이 고지서 전달비도 없게 버리면 리장단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 될 것이 뻔하니 사뭇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고 존중하는 시장님께서서는 해당부서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시를 위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 최소한 우리 리·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굳이 전달하지 않겠다는 읍·면·동은 제외하더라도 전달하겠다는 읍·면·동 만큼은 전과 같이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 조복래 · 사천시 곤양면

회상의 신작로(新作路)

신작로(新作路)가 생기고부터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부역을 나갔다
굵은 자갈돌을 트럭에 싣고 와
피엠퍼머 부어 놓고 가면
은 동네 사람들이 한집에 한 사람씩
삼, 곡괭이 들고 나와 신작로에 깔았다

신작로가 생기고부터는
먼길 30리 길이 가까워져서 좋았다
눈 내리는 성당길 밤
읍내에 있는 성당에 가서
빵 얼어먹기 좋았고
리어카에 고구마 가득 싣고
장터 가기도 좋았다
월사금 내지 못해 쫓겨 올 때도
길이 좋아 슬프지 않았던
신작로(新作路) 새 길

그 때의 신작로는 없어져 버리고
고속도로도 같은
넓은 아스팔트길이 생겨 있었다

배 체 현 :: 작가 약력

경남사천 축동출생
등단시인 부산문인협회 가톨릭문인협회 회원
동방의 나무나라 현대합판 목재상사 대표

농업기술센터 소식

뿌리째 먹는 사천꽃마늘



150여년의 역사 속 묻혀 이제 세상에 알려진 토종 사천 꽃마늘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뿌리째 먹는 사천꽃마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마늘의 독특한 향과 깔끔한 맛으로 어우러진 사천꽃마늘을 집집마다 조금씩 재배하여 왔는데 이제 사천시는 산이 오동통 오동통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산천이 맑아져서 사천꽃마늘 재배를 위하여 서울시장 개척을 위한 출정식을 지난 2월 24일(토) 남양동 미룡마을에서 가지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 사천은 '사천꽃마늘'의 고향

사천은 따뜻한 날씨로 한겨울에도 별다른 난방시설도 없이 마늘을 재배한다. 주로 남해바닷가 남양면 일대다. 찬바람과 눈비 맞으면서 한겨울을 난다. 입춘이 지나면서 사천의 꽃마늘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아 간다. 말 그대로 풋풋한 꽃마늘의 변모이다. 추위에 들어졌던 누런 마늘잎이 완연한 초록으로 돌아서고, 흰 마늘줄기에는 살이 오동통 오동통. 여기에 구근 줄기에 홍조까지 피어오르면 농부의 일손은 바빠진다.

□ 뿌리째 먹는 사천꽃마늘

'마늘을 뿌리째 먹는다.' 사천 꽃마늘의 특징은 뿌리째 먹는데 있다. 뿌리가 유난히 희고 길다. 수염같이 흰 뿌리에 양념만 잘하면 불철의 싱그러움과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 냉이나 달래를 무쳐둔 갖은 양념으로 무쳐내거나 하면 된다. 여기에 이웃 농민들이 길러내는 석화(굴)에 무쳐먹으면 겨우내 잃었던 입맛 찾기는 순간적이다. "꽃마늘은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마늘 특유의 향으로 불철 찌개를 끓이거나 나물무침, 생선회 안주에 제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70여 평생을 먹어 온 남양 미룡마을의 서일삼 씨 증언)

'사천꽃마늘'의 특징은
-마늘 고유의 진한 향(남해바다의 해양성 기후 탓)
-조각이 부드럽고 깔끔한 맛
-줄기는 흰색이나 뿌리 부분은 붉은색으로 굵고 짧다.
-얇은 껍질과 뿌리는 유난히 길고 건실하다.

□ 재배면적

지금 사천시 남양면 일대는 집집마다 텃밭에 조금이라도 심는다. 보통 4백~5백평 규모로 심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짝짤하다. 현재 시 통계에 의하면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사천시 블루오션 작목으로 손색이 없다.
-30ha 311농가
-재배지역 미룡, 송천, 대포, 신촌, 노룡, 대례
-생산량 12억 소득(770톤*1단1,500원)
-평당 매출 15,000~20,000원

□ 재배기간

꽃마늘은 가을 추수 후에 9월이 되면 눈을 이용하여 심는다.(밭은 보름 일찍) 다음 해 2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하여 3월이면 절정을 이룬다.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한겨울 꽃마늘을 생산할 계획이다.

□ 사천꽃마늘 요리

보통 마늘은 마늘구이나 마늘종을 식품으로



로 사용하는데, 사천꽃마늘은 잎줄기부터 (잔)뿌리까지 모두 식품으로 이용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주로 줄기를 잘라서 된장국이나 장아찌를 즐겼는데, 요즘은 석화(굴)에 뿌리를 데치거나 생으로 무쳐서 술안주에도 자주 이용한다.
▶ 꽃마늘장아찌 - 꽃마늘을 적당히 썰어서 생으로 고추장, 깨소금, 물엿으로 버무린다.
▶ 꽃마늘뿌리무침 - 데치거나 생것으로 가능한데 흰뿌리를 깨끗이 씻어 석화를 기본으

로 당근, 고추 등과 함께 무친다.
▶ 꽃마늘화채 ▶ 꽃마늘나물 ▶ 꽃마늘된장찌개 ▶ 꽃마늘뿌리튀김 ▶ 꽃마늘부침개 ▶ 꽃마늘튀김 등

□ 유통

사천꽃마늘연구회 이일건 회장의 경우 입춘



후로 하루에 30단씩 출하를 하고 있다. 거제도 상인들이 주로 찾는다. 싱싱한 흰감에 사천꽃마늘이 제격이기도 하지만 조선업 활황 덕을 톡톡히 본다. 1단에 2천원씩에 나간다. 이리다가 3월 남도의 매화꽃이 휘날릴 때면 하루에 1톤씩 출하하게 된다.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지만, 부산, 대구 상인들이 찾아 주어 가격대를 유지한다. 서울시장은 한번도 두들기지 못했다. 올라갈 틈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텃밭수준에서 농사를 짓는다. 서울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안정적인 농사가 가능하다. 사실 사천시 일대에는 겨우내 노는 땅이 즐비하다.

*꽃마늘의 사전적 의미

'아직 덜 여문 마늘'이라는 뜻으로 덜 여문 마늘의 어린 잎줄기와 뿌리를 가리킨다. 요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일종의 베이비(baby) 채소다.

□ 마늘의 효능

마늘은 항균작용이 월등하여 세계 1차대전 때는 소독약품으로 사용하였고 항암, 항산화작용, 심장마비, 뇌졸중 예방에 관여하고, 특히 바이러스 질병에도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는 식품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막의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노예들에게 마늘을 먹여 노동과 더위를 견디게 했다고 한다. 이곳 남양면 일대 주민들도 평생 꽃마늘을 상용한 때문일까? 마을은 늘 건강하다.

□ 사천시의 역할

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영)에서는 사천꽃마늘의 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센터 내 조직배양을 통해 우수형질을 유지시키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선발 및 육성을 지속적으로 연구·공급하고 있다.

□ 조건의 혁신을 통해 사천꽃마늘이 전국소비자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조건의 혁신을 통해 사천꽃마늘이 전국소비자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조건불리지역직불제한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의 밭, 과수원, 초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직불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직불금은 의무사항을 이행한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 직불금 지원대상은 경작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단,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읍면동 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 범위에 연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원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쌀소득등직불금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직불금 지급 개요
- 지급단가 : 밭, 과수원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 (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 지원조건 지원금액중 30%이상 마을공동기금으로 반드시 조성(시에서 공동기금 적립통장에 직접 입금), 마을활성화, 공익기능 증진활동 등 마을발전에 사용
○ 대상지 선정절차(2007년 2월 ~ 6월)
- 지역선정 및 신청(2~4월) : 마을발전 계획제출 및 확정, 마을협약서 작성
- 대상지 선정(5~6월) : 지급약정 신청서

제출,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발생하는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3회)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전환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7. 3. 1 ~ 3. 31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

□ 사업대상자 변경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사업기간 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830-8043),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소년포록이의항공이야기 (39)

항공스포츠(Air Sports) - 스카이다이빙(skydiving)

낙하산을 이용한 항공스포츠는 스카이다이빙(skydiving),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 그리고 패러플레인(para-plane)등으로 구분된다. 낙하산은 착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낙하산을 펴지 않고 신체를 이용하여 시속 180~300km의 속도로 하늘을 나는 스카이다이빙, 산이나 언덕 위에서 바람을 받아 낙하산의 양력을 이용하여 낙하산을 타고 활공하는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장비에 프로펠러가 달린 엔진을 구동하여 추진력으로 낙하산을 타고 활공하는 패러플레인 등이 있다.

스카이다이빙(skydiving, 고공강하)이란 낙하산을 착용하고 항공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높은 하늘에 올라간 뒤에 그곳에서 허공으로 뛰어 내려 자유강하(free fall: 낙하산을 펴지 않은 상태로 하강하는 것)를 하면서 계획한 동작을 수행한 뒤, 정해진 고도에서 낙하산을 펴고 땅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항공스포츠를 말한다. 스카이다이빙은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 내리는 것인데, 단순히 떨어지거나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것이다. 보통 3천~4천 미터 상공에서 뛰어 내리면서 낙하산을 펴는 안전고도인 8백 미터까지 45초~1분 동안 하늘을 나는 것이다. 스카이다이빙 속도는 자유 강하시 기본자체의 경우 시속 180km의 평균속도가 유지되며, 최대속도는 자세에 따라 300km까지 낼 수 있다. 스카이다이빙은 1961년 미군에 의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의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에 700여명의 회원이 있다. 국제대회인 월드에어게임에 참가하고, 국내에서는 매년 스카이다이빙 협회장이 주관하는 대회가 개최된다. 2006년 10월 제30회 특수전사령관배 스

카이다이빙 대회가 계통대 인근 지상군 페스티벌장(계통대 비상활주로 옆 강하장)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하여 낙하산세트와 운동화, 헬멧(helmet), 스카이다이빙복(suit), 방풍안경(goggle)과 고도계(altimeter)가 필수적인 장비이며, 안전을 위하여 착용을 권유하는 장비로 고도경보계(alarm)와 자동산개기(automatic activate device)가 있다. 낙하산 세트는 크게 주낙하산, 예비낙하산, harness(낙하산 배낭과 벨트)로 구성되며, 구입을 할 때에는 모두 별도로 구입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초보자는 플라스틱 헬멧을, 숙련자는 가죽으로 만든 헬멧을 사용한다. 고도계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현재의 자기의 고도를 가리켜 주는 계기로서 손등에 착용하는 것과 가슴에 착용하는 방식이 있다. 고도경보계는 고도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낙하산을 펴야 할 고도에 이르면 경보음을 내어 스카이다이빙가 자신의 동작을 수행하는 데만 몰두하여 고도계를 보는 것을 잊었을 때에 유용한 장치이다. 자동산개기는 스카이다이빙가 낙하산을 펴지 못하였을 때, 일 정고도에 이르러 자동하여 낙하산이 펴지도록 한 안전장치이다.

우리나라는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허가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게다가 산이 많은 지형적인 특수성 때문에 고정익항공기 대신에 주로 헬기를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에게 스카이다이빙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홍합 [紅蛤]: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가 제철

시원한 국물이 생각날 때, 숙취해소에 홍합이 좋다. 색이 홍색이어서 홍합이라 하며 영남지방에서는 열합, 합자, 강원도에서는 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 해안을 비롯하여 중국의 북부,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산란기는 늦봄에서 여름 사이로 맛이 떨어진다. 늦겨울에서 초봄이 제철이며 여름에 채취한 홍합에는 마비·언어장애·입마름 등을 일으키는 사시토닌(Saxitoxin)이라는 독소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겨울철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바다에서 나는 것이 다 짜지만 유독 이것만 심겁기 때문에 바다의 담채라고 한다.

홍합은 83%가 수분으로 돼있지만 간장기능을 돕고 간의 독소를 풀어주는 타우린 성분이 많아 숙취해소에 많이 이용된다. 또한 비타민 A, B, B2, 칼슘, 인,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다.

홍합의 효능 중 몇 가지는 생(生)홍합보다 햇볕에 잘 말린 홍합에 더 많이 들어있다. 타우린은 생것이 100g당 974mg, 말

린 것은 무려 2100mg이나 들어 있다. 그리고 말린 홍합 100g에는 단백질이 56g 들어 있으며 지방 함량도 10g 가량 되나 이중 80%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지방이다. 그러므로 같은 100g을 섭취 하더라도 생것은 66kcal, 말린 것은 373kcal의 열량을 낸다고 한다.

1. 여성질환 및 스트레스에 효과
홍합은 현대에 들어와서 더 빛을 발하고 있는 식품으로 여성 스트레스의 보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성 질환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 '병약하면' (조선 후기의 의서(醫書))에서는 '오래된 이질을 다스리고 허한 것을 보충하며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부인들에게 유익하다'고 전한다. 또한 홍합죽은 여성의 요통이나 냉대하증, 산후 회복 식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체력보강 및 원기회복
평소 식은땀을 많이 흘리거나 자주 어지럽고 체력이 허약한 사람에게도 홍합을 권한다. '동의보감'에서는 홍합에 대해 '오장

의 기운을 보호해 주고 허리와 다리를 튼튼하게 하며 성기능 장애를 치료한다.'고 써져 있을 만큼 몸이 허해 마르거나 해산 후에 피가 멎쳐 배가 아플 때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3. 노화 예방 및 빈혈에 효과
피로 회복과 노화방지에

더없이 중요한 비타민C와 E 등이 풍부하여 몸속의 유해산소를 제거해 노화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빈혈 예방에 좋고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있게 가꿔 준다고 해서 홍합을 '동해부인'이라고 불렀다.

4. 간기능 활성화 (타우린)
홍합에는 타우린 성분이 있어 쓸개즙의 배설을 촉진해 간의 독소를 풀어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동맥경화를 막고 간 기능을 좋게하여 숙취해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5. 골다공증 예방
프로비타민D의 함량이 높은

편으로 칼슘과 인의 체내 흡수를 향상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뼈나 치아의 형성, 뼈의 석회화를 막음)

6. 체내 나트륨 배설
홍합에는 소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합 속에 함유된 칼륨이 체내에 축적된 소금 성분의 나트륨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홍합은 중풍 환자의 영양식으로 좋다.

홍합탕은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맛볼 수 있는 홍합 요리로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불그스름한 빛깔이 짙지않고 씹히는 속살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실과 송송 찢은 뽀얀 국물은 숙취해소에 좋아 어른들이 즐기는 가족음식이라 할만하다. 특히 홍합죽은 여성뿐만 아니라 마르고 허약한 어린이 노인들에게도 권장한다.

시장바구니 들고 어시장으로 나가 봅시다.

/문정호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시만각령 ■■■

공권력과 국가 위상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임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인이라도 민 주주의에 걸맞은 도리와 책임을 다할 때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다. 주인된 책무를 하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으려 들면 지탄과 멸시를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일을 다 반사로 하고 있다. 불법 시위가 경찰에 대드는 건 예사이고 술취한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주정차를 위반하여 법칙금 스티커를 발부람은 운전자들이 단속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관행처럼 굳어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데도 일부 원인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준법정신 부족과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태도,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법규 집행 정책 등이 혼합

되어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 법을 '거미줄 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있다. 거미줄은 힘 센 곤충은 뚫고 나가고 힘없는 곤충은 걸려서 거미의 밥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은 돈이나 힘이 있는 사람은 빠져 나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걸려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다. 시중에는 큰 돈을 흥친 권력형 비리 장본인은 활발하고 작은 생활비를 흥친 생계형 범죄자는 걸려 감옥살이를 한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법이 공명정대하지 못하니 공권력도 바로 서지 못해 국민들은 법이나 규칙 준수를 손톱 밑의 때처럼 하찮게 대한다.

정부 당국은 법규의 집행을 분명히 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지엄하게 다스려 국가의 기강을 확립해야겠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는 보호되되 불법, 탈법, 위법 행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가해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

히는 책동은 사전에 철저히 뿌리 뽑아 선량한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공권력이 가볍거나 범람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요즘 들어서는 권위주의의 청산이란 미명 아래 정부의 권위는 물론 대통령의 권위도 우스워지는 꼴이다. 종합적으로 권위가 추락하고 공권력은 무력해지고 있다. 곳곳에서 목소리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위력을 발휘하는 형국이다. 시민단체가 정부 부처를 좌지우지하고 노동단체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등 총체적인 권위의 추락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은 보장되되 방종이나 불법, 탈법, 편법은 엄정하게 다스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야 하겠다. 그것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다.

/박정도 · 부산 사하구 대대동

삶의 길잡이 '명심보감'

原文: 若要人重我면 無過我 重人이나니라.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남을 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데에 참다운 예의가 있다. 예의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정성이 깃든 예의에는 참다운이 느껴진다.

예절 바름이란 사람의 거짓 없는 마음 가운데에서 옳은 것을 추려내는 기술이다. 사람들은 하찮은 일로 여겨 예법을 천대하지만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의 구별이 예의를 아느냐 모 르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흔히 있다. 버릇이 없는 사람이란 터무니없이 자만심만 큰 사람이다.예의 바른 행동은 남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예의가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고 한다. 예가 아니 거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했다. 예기(禮記)에서는 예는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박잎에 청개구리 뛰어 오른다」란 말이 있다. 나이 어린 자가 버릇 없이 행동하거나 건방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규소절자 불능성 영명(規小節者 不能成榮名)이란 말이 있다. 작은 예절을 지키지 못하면 커다란 명예와 영달(榮達)을 얻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마(愛馬)의 목을 자른 충무공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러 화랑들과 무예 연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김유신은 말 위에 앉은 채 꾸벅 꾸벅 즐기 시작했다. 얼마가 지난 뒤에 말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김유신은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자기가 잘 드러드는 술집이었다. 그 술집의 천관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뛰어오르며 김유신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어머니에게 이 술집에는 다시 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였는데 어머니에게 면박을 먹게 되어 버렸다. 김유신은 말에서 내려 말을 꾸짖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말은 필요 없다면서 칼을 뽑아 말의 목을 내리쳤다. 말은 죽고 말았다. 스스로의 결심을 다지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아까던 말을 죽이고 말았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남의 잘못을 꾸짖는 일에는 밝으면서 나를 살피는데는 어두웠구나, 그 말(馬)을 잘 못하게 한 것은 그 술집에 자주 드러들었던 나의

잘못이었던 것을" 하고 후회했다. 그 후부터는 부하를 꾸짖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뒤우 치며 용서하듯이 먼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은 행동으로

우려나 많은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유신은 마침내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고 민족의 찬란한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김형태 · 사천시 사천읍

저 령 계



변 근 철

무릎에서 아차 하고 떨어지는 나의 상처
이해하기 어렵게
찾아볼 수 어렵게
만들어버린 나의 폐품

쉬는 곳에서 아차 하고 부러뜨린 풀잎들
연중의 기본 설계를
배고플때 먹을 식량을
한 순간에 앗아버린 나의 오점

폐품이 쌓이면 먼지가 되어
눈과 귀를 막아버리지

오점이 쌓이면 던지는 손가락질에
수렁으로 빠져버리지

아침이슬 삼키던 달이 저녁 문을 날찍이 열어두고
남기는 것 없이
타오르며 가네

사천에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산 설흘산

지난해 사천시 경계종주에 이어 지난달에는 우리 사천시에 소재하는 명산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달부터는 사천에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산을 소개코자 한다. 그 첫 번째로 봄이 오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봄을 느낄 수 있는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설흘산을 찾아가겠다.

설흘산은 남해금산 · 망운산 · 호구산과 함께 남해의 명산으로 최남단에 위치하며 망산 · 응봉산과 인접한 산이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깊숙하게 들어온 앵강만이 한눈에 들어오고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인 노도가 아득하게 내려다보인다. 김만중은 조선 숙종 15년에 이곳 노도에 유배된 후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위해 한글소설 '구운몽'을 여기서 집필한 뒤 병사하였다 한다. 또한 여수만 건너편의 여수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한려수도의 아가자기한 작은 섬들도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설흘산은 몇 년 전만해도 세



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다. 그런데 산악전문지 "사람과 산"에서 사천수양산악회의 안내로 설흘산을 취재한 뒤 분산행 기획특집으로 2000년 3월호에 설흘산을 소개하면서 전국의 등산마니아들이 다투어 이 산을 찾게 됐다. 마침 남해군에서 새천년 해돋이 행사를 위해 등산로를 정비하고 난 뒤의 일이다. 거기다가 2003년4월 사천에서 남해를 잇는 창선 · 삼천포 대교가 개통되면서 더 부상하기 시작한 산이다.

설흘산 산행은 왕복으로 채 2시간도 걸리지 않는 단순한 코스이므로 인접한 응봉산과 연결하여 산행하는 것이 좋다. 등산코스로는 가천마을에서 오르는 길과 흥현마을을 무지개 고

개에서 오르는 길이 있으나, 주로 가천마을에서 산행기점을 잡는다. 설흘산에 올라서는 다시 응봉산을 거쳐 가천마을로 되돌아오는 원점회귀코스과 응봉산에서 칼바위능선을 타고 선구마을로 내려오는 종주코스가 있다. 자가용을 타고 갈 경우라면 차라히수가 불편하므로 원점회귀코스를 택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종주코스를 소개코자 한다.

먼저 산행기점이 되는 가천마을까지는 삼천포대교를 건너든지 새로 개통한 사천대교를 건너 서포면과 진교면을 거쳐 남해읍을 지나 남면 해안도로를 따라 가천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 가천마을을 주차장에서는 바로 시멘트길 임도를 따라 설흘산으로 오르는 길이 있으나 최소한 20여명이상을 시멘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 마을 쪽으로 500m정도 더 올라가면 가천 테마펜션민박 간판아래 설흘산 봉수대입구 표지판이 있다. 여기서 잠시 농로를 따르면 테마펜션민박 앞을 지나서 바로 산길로 접어든다. 설흘산 1,200m라는 팻말을 지나서 한참 빼알길을 오르면 이정표가 있는 안부에 도착한다. 흥현마을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지점이다. 여기서 설흘산은 오른쪽방향으로 10여분이면 다시 안부에 도착하고 또 이정표가 있다. 왼쪽의 망산(406m)을 제쳐두고 오른쪽으로 100m정도 오르면 바로 설흘산 정상인 봉수대에 도착한다. 이 봉수대는 왜구의 침입을 금산의 봉수대와 사천의 각산 그리고 전남 등지에 연락을 하였고한다. 봉수대에서 좀 더 앞으로 내려서면 기암괴석과 암반지대로 발아래 출렁이는 바다위로 고깃배가 지나고 여기서 바라보는 풍광이 아주 좋다.

한동안 은빛반짝이는 쪽빛바다를 바라보며 감상을 즐긴 뒤 다시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서서 흥현고개를 지나면 넓은 잔디평원이다. 바로 가천주차장에서 시멘트 임도를 따라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곳이다. 여기서 부터는 넓은 길로서 오르내림도 없이 정겨운 산책로가 이어진다. 한동안 산책로를 따르면 응봉산정상 지점에서 왼쪽으로 육조문 하산길이 있다. 이어서 암릉을 올라서면 바로 응봉산(일명 매봉산 · 472m)이다. 풀타이서 있는 정상은 사방으로 전망이 좋고 멀리 바다에서부터 뱃고 소리도 들려온다. 정상에서는 바로 가천마을

하산길이 있는데 육조문을 비롯하여 이 코스 또한 아가자기한 암릉으로 랜창은 코스이다. 하나 어차피 한 코스를 택해야 하므로 칼바위 암릉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상에서 칼날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따라 내려선다. 공룡능선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이 코스가 아마도 설흘산에서 가장 하이라이프구간이 아닐까?

새천년 이맘때 사람과 산취재팀과 함께 설흘산을 찾았을 때만해도 이쪽 암릉길은 발길흔적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안전구조물 설치는 물론 등산로를 잘 정비하여 큰 걱정 없이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칼바위봉을 비롯하여 칼날능선에는 접근금지 팻말이 줄을 잇는데 산꾼들에게는 예전의 원시적 시절이 그림기도 하다. 암릉과 우회로를 번갈아가며 바위지대를 지나면 솔밭길로 내려선다. 이어서 오른쪽으로 사촌재수목장 갈림길을 지나 잠시 후 선구마을에 도착한다. 선구마을에서는 가천마을까지 십리길로 시간에 맞춰 군내버스를 기다리든지,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오든지 해야 한다. 아니면 그냥 도로를 따라 바다풍경을 바라보면서 해안선을 따라 오순도순 얘기하며 한시간

정도 걸다보면 어느새 가천마을에 도착한다.

산행 후 시간이 남는다면 가천마을의 유명한 다랭이 논과 암수바위를 둘러보는 것도 좋다. 이렇듯 설흘산은 그리 힘들지 않고 봄 산행지로서 알맞다. 돌아오는 길은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인 해안도로를 따라 삼천포 대교를 건너서 바닷가 횡집에 앉아 소주잔잔으로 산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면 참 좋은 하루를 멋지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등산코스

1. 가천마을-설흘산-응봉산-육조문 능선-가천마을(약5km/2시간)
2. 가천마을-설흘산-응봉산-칼바위 능선-선구마을(약7.5km/3시간30분)

찾아가는 길

- 1)사천→삼천포대교→지족→이동면→가천마을→설흘산(34km)
- 2)사천→삼천포대교→미조면→상주면→가천마을→설흘산(64.5km)
- 3)사천대교→서포면→진교면→남해대교→남해읍→가천마을(65km)
(남해는 사천시와 인접하고 있으나 버스는 하루 2차례정도 밖에 없어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하다)

/조민중 · 사천농협

사천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



사천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9일(금) 오전10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읍 2층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새마을 회원들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천읍영농식육점을 운영하는 박범기씨는 평소 새마을 정신이 투철하여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에 적극 호응, 매년 돼지고기 10kg을 기증했다. 사천건설의 최형환씨는 매달 10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날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

읍주민자치위원회, 지신밟기 행사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성재근)는 지난 2월 20일, 21일 이틀간 주민자치센터 풍물팀과 함께 한 해 동안의 복을 빌고 잡귀를 쫓아내는 지신밟기 행사를 가졌다.

주민자치 위원과 풍물팀 등 40명의 인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읍내 가정집과 사무실,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지신을 밟고, 일행을 맞이한 주인은 주안상을 차려 대접함으로써 화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사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년 해맞이 행사, 불우이웃돕기, 거동이 불편한 이웃 무료 도시락배달,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우리 사회의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동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설날



정동면직접자봉사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백미 30포와 선물세트 10종을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거나, 홀로 외로이 명절을 보낼 40세대를 방문하여 위문 격려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현금 15만원과 백미를 차상위 계층 4세대에 전달하였고, 사천라이온스는 백미 5포를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밖에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라면과 백미 10포를 기탁하였으며, 자원봉사회원들은 손수 국과 제수용품을 독거노인 8세대에 마련해 주었다.

한편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향의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일환으로 자연보호협의회·남녀새마을지도자회·자원봉사회원 50여명은 국도 33호선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쓰레기 2톤을 수거하여 훈훈하고 정이 묻어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남면 사천푸르지오 노인정 및 부녀회 현판식



사천푸르지오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과 부녀회 현판식이 지난 2월 6일(화) 오후2시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주민대표인 원 태(전 사천군 부군수)회장 및 김길웅 노인회장, 이복희 부녀회장, 유혜식 관리소장의 행사진행 준비로 김주일 도의원, 김기석·제갑생 시의원, 최진수 사남면장, 기관 단체장 및 아파트 주민 100명, 노인회원 50명, 부녀회원 70명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패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푸르지오 아파트에 입주한 모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과교라에서 안전지원제를 올렸으며 이후 노인정, 부녀회 건물이 입주해 있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현판제막식 및 테이프 컷팅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을 위하여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행사준비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한 다과회를 가지며 축하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현재 사천푸르지오는 15개동 998세대의 규모로 건설되어 1월31일 기준으로 792세대 2,276명이 입주하였으며 인근에는 시민들을 위한 사천 초전공원도 건설되고 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사남면 자원봉사협의회(이말남), 새마을지도자협의회(곽석도) 및 부녀회(이도남)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20가구를 방문하여 쌀 20포대(20kg) 및 생필품세트를 전달하여 따뜻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경남대양유전(주) 노동조합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150만원을 기탁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위문대상자 5세대를 선정하여 세대별 30만원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관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근로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용현면 용현발전연구회 30년사 출판기념회



용현발전연구회(회장 조명제)는 지난 2월 13일 용현농협 회의실에서 30년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누가세월(累過歲月)'에는 그동안의 업적과 회원들의 활동 뿐 아니라 용현면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가 담겨 있어 우리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현발전연구회는 1976년 새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한창 확대될 시기에 22명의 회원으로 발족하여 30년 동안 친목과 봉사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복지사업과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훈훈한 이웃사랑 나누기

용현면자원봉사협의회(회장 임분남)에서는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세대(조명선씨 외 7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생필품 및 식료품을 전달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목욕봉사 및 밀반찬 만들기 봉사도 하는 등 이웃의 소중함과 감동을 자아내게 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축동면 설날맞이 이웃돕기

축동면 소재 탑리공단협의회(회장 성만기, 천호산업 대표)와 축동면자원봉



사협의(회장 이미숙)에서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정부의 생계보조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가정위탁 아동 등 25세대)을 위해 평소 제공하고 있는 밀반찬뿐만 아니라 각종 제수용품(조기, 돔, 민어 등 2백만원 상당)을 마련, 전달하여 수혜 가정(대상자)에 이웃의 소중함과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등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섰다.

또한 축동면 탑리 75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광성(대표 성근자)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달라며 라면 20박스(5십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곤양면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 줄이어...



우리면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는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 이었다.

관내 동천마을에 거주하는 정외덕(68세)씨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절약하여 모은 돈 30만원을 기탁하여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며, 접복계 마을에서 축산업을 하는 정준상(53세)씨도 5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였다. 또한 명진기업(대표 김택세)은 명절 때마다 위문품을 기탁해오고 있는데, 이번 설에도 백미 20포(10kg)를 전달하였으며, 곤양면의용소방대(대장 최봉천)와 한전사천지점에서도 각각 백미 20kg 10포(20kg)와 백미 15포(20kg)를 어려운 가정에 전달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소화기 기증

지난달 22일 이장회의에 앞서 곤양주유소 대표 최재권씨는 마을 어르신들이 화재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분말소화기 31대를 기증했다. 소화기는 마을회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한 후 지급되었다.

곤명면 풍물패 강습 및 운영



지난 1월 23일(화)부터 곤명면 풍물패 강습을 실시했다. 풍물패 강습은 곤명 면민으로 풍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락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사는 큰돌 풍물패 임기원씨이며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4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면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봉사 실시



지난 2월 7일(수) 서포면 남녀 의용소방대 김용찬(남), 박미순(여) 대장의 28명은 무의탁 독거노인 50여명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천소방서 서장(이재순) 외 직원 10명, 서포 119지구대 대장(채경운) 외 5명이 참석했다. 또한 소방서 돌보미 사업으로 골포마을 재함이(84)씨 집을 수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동서동 설맞이 시가지 환경정비

지난 2월 14일 동서동 통장협의회, 새마을 남·여지도자 등을 비롯한 150여명의 조직원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하여 시가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곳 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정비를 위해 모인 관내 단체 조직원들은 용운사 입구에서 대방사거리, 각산사거리에 걸쳐 도로변과 풀숲사이의 쓰레기를 2톤가량 수거하여 주민들과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다.

인정넘치는 동서동의 정해년



동서동 새마을 남·여지도자협의회(회장 구찬홍, 강현자)는 참기름 판매와 공병 및 헌옷수거 등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구입한 밀감과 사탕, 술 등(총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2월 15일 지역경로당 및 노모당 16개소를 직접 순회 방문했다. 동서동장과 여러 새마을 지도자들은 어르신들의 손을 따뜻한 마음으로 잡으며 새해인사와 함께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건네고 어르신들은 덕담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동서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새마을 단체에서는 이번 설에도 연료하진 할아버지, 할머니께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인사하고 다함께 세배를 드렸다.

선구동 설명절 맞아 온정의 손길 줄이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온정의 손길이 세밀 추위를 녹였다. 선구동 이웃사랑회 회원(삼수가 잡고 맛나가 쌀고 사장 이종초, 색동어린이집원장 강성욱)이 백미 10포(10kg), 삼천포화력본부 한전아파트사택 부녀회(회장 김성녀)에서 백미 10포(10kg)를 기증하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20세대에 전달되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및 경로당에도 각계각층의 위문품이 전달되어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되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자원봉사 날개를 달다

선구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으로 프로그램 수강생 중심의 자원봉사활동을 금년 1월부터 펼치고 있다. 선구동의 핵심과제인 복지패밀리제와 더불어 법정 수강자가 아닌 세대를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과 결연을 맺어 매월 금전지원 또는 재가봉사를 하고 있다. 초급과 중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스포츠댄스반과 단전호흡반은 결연 6세대에 금전적 지원을 하였고, 우리춤우리가락



반은 결연 2세대에 밀반찬 만들기 및 청소 등의 재가봉사를, 사군자반은 삼천포경로당 무료급식활동을 매주 목요일 2명씩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정성이 어루만 이웃을 도와주고 배풀어 준다는 자부심에 수강생들도 계속 자진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등 참여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구동 직원과 동지역 12개 자생조직단체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세대와 결연을 맺고 일제히 자원봉사 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선구동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중심으로 출발한 자원봉사활동은 향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참 주민자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동서금동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초청행사



동서금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신근)는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위원장 윤복일)들을 1월 24일, 25일 이틀간 초청하여, 상호 주민자치발전방향 및 양지역간 자매결연을 통해 상생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향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날은 간담회와 만찬의 시간을 가졌고 둘째날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시찰과 우리 지역 설명회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돕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도면과의 교류는 1998년 우도면을 첫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10차 교류로 이어져오고 있다. 동서금동과 우도면의 자매결연 행사는 양 지역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상호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벌용동 지신밟기 정월대보름 행사 보러오세요



벌용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동발전과 지역주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3회째인 지신밟기 행사는 벌용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소리누리'가 참가하여 오는 3월 3일부터 4일 이틀간 동관내를 순회하며 50여 신형세대를 대상으로 입장 쿿, 성주 지신굿 등 지신을 밟을 계획으로 벌용동에서는 지신밟기를 통해 악귀를 물리쳐 주민에게 복을 주고 가족의 수명과 건강을 지켜주며 풍년이 들어 동민 대화합을 가져다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벌회에서는 한내경로당 주변 한내천에서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고사소리, 소망지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진정한 이웃사랑 실천

벌용동에는 꾸준한 불우이웃돕기로 진정한 이웃사랑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진영옥(남, 75세, 천일식품 운영)씨는 지난 2월 16일 벌용동사무소에 기초생 활보장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30명을 초청, 위문품을 전달하여 훈훈한 온정을 나누었다. 이번이 25회째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진영옥씨는 1995년부터 매년 설, 추석명절 때마다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어려운 이웃 30~50여명에게 1세대당 10만원씩 약 300만~500여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삼천포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강태준(남, 53세)씨와 하영아트타일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웅(남, 63세)씨가 각각 100만원씩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여 어려운 세대 지원을 의뢰하였다. 강태준씨는 5년동안, 조성웅씨는 3년동안 매년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우리지역의 봉사자이다.

진정한 독지가인 세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며, '작은 손길이 어려운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겸손해 하는 모습이 이기주의화된 개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촌동 어려운 이웃에게 성품 기탁



향촌동체육회 부회장인 강유복씨(유진수 산 대표)는 향촌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백미 50포(20kg)(2백만원 상당)를 기탁함으로써 훈훈함을 전했다.

이날(2월 7일) 강유복씨는 향촌동을 방문,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향촌동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회와 동삼회에서도 백미 5포(20kg), 10포(20kg)를 각각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사랑의 위문품을 전달받은 향촌동은 관내 65세대의 어려운 가정을 선정, 백미 20kg을 각 가정에 전달했다.

향촌동체육회 임원진 선출

2006년도 정기총회 및 2007년 향촌동체육회를 이끌어 갈 신임 임원진 9명(회장1, 부회장5, 감사2, 사무국장1)선출이 지난달 11일 향촌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었다. 향촌동 체육회 이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이날 임하는 최봉수 전임회장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박순복(57세)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촌동 체육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양동 남양육영재단 장학금 전달식 가져



남양육영재단(이사장 이두정)은 지난 2월 10일(토) 오전11시 남양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제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김수영 사천시장, 이방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생 2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7명(사천 14명, 부산 3명), 삼천포여고 농구부에 총 6,0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남양육영재단(2003년 발족)은 현재 33억 5천만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관내 전 고등학교(9개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과 우리지역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천이 뜨고 있다 ⑦

“지도를 거꾸로 보면 사천의 진로가 보입니다.” 사천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꼬트머리에 위치한 도시가 아니라 태평양과 동아시아로 향한 길목의 중심으로서 물류통로에 있습니다. 사천시는 경남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부러운 도시’로 뜨고 있습니다. 사천시보는 지면을 빌려 보다 상세히 시민들에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천시를 사랑합니다. 사천시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다함께 세계 속의 사천시로 나아갑시다.”

/편집자 주

시에서는 학생들의 타도시 유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학부모들의 과중한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천시 미래발전의 주역이 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올해 총 2,23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인재육성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3년부터 10년간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운

영되고 있는 사천시인재육성 장학기금을 통하여 우수 학생의 관내 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성적 우수 학생에게 최고 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59명의 학생에게 278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6개교에 514백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지속 추진

인재육성장학금 지급(566명, 9억3천만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추진



지원하여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학교급식 식품비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급식

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원어민 교사제 운영(2명, 100백만원),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2개교, 10백만원), 학교 체육종목 육성 및 시설비 지원(160백만원), 관악부·농악부·가산오광대 육성(4개교, 20백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110백만원) 등 2006년도에 비해 23%가 증액된 예산 지원도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육성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경남대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에 있는 미국교

교환학생프로그램은 우리지역 우수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중3~고2) 중 성적 우수 학생 5명으로서 지난 2월 중 참가 희망 학생 신청서 접수 결과 16명의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은 2007년 9월학기로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0개월간 미국 공립고

등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위탁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위탁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천시의 노력으로 지난 해에는 내신석차 5%이내 우수학생의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진학이 2004년 9명에서 2006년 24명으로 166% 증가하였고, 관내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입학률이 2004년 68%에서 2006년 74%로 6%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대학진학률이 2003년 74%에서 2005년에는 83%로 9%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사천시에서는 21세기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찾아서 (38)

대방진굴항(大芳鎭掘項)

1980년 12월 20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3호로 지정된 '대방진굴항'은 대방동 250번지 235㎡, 251번지 1,686㎡ 등 1,921㎡가 지정구역이고, 756번지 704㎡, 공유수면 2033㎡의 2,737㎡가 보호구역으로서 전체 4,658㎡의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진(鎭)의 정확한 이름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으나 1832년의 진주목읍지(晉州牧邑誌)의 참고조에 '선진항(船鎭倉) 재주남팔십리말문면(在州南八十里末文面)'이라는 기록과 조선말의 이 고장 문인 노봉(魯峰) 김재식(金載軾)의 시제(詩題)가 '대방선진(大芳船鎭)'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방선진(大芳船鎭)'이 공식 명칭이 아닌가 추측한다.

문화재 공식 지정 명칭이 '대방진굴항'으로서 이곳은 200년 이상 된 팽나무를 위시하여 여러 종류의 활엽수가 식재된 숲속에 조성한 인공 축조항으로 마치 커다란 연못을 연상케 하며 앞바다에서는 숲만 보이고 배를 정박한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조성되어 있다.

대방과 녹도 사이의 좁은 해협은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으나 물살이 거세어 쉽게 녹도에 상륙할 수 없는 군사상 요충지로서 고려시대 이미 구라량영(營)이 설치되어 구라량만호가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고려 충정왕 2년(1350) 2월에 왜구가 고성(固城)·죽림(竹林)·거제 등지를 침범하였다. 함포천호 최선(崔善)과 도령 양관(梁寬) 등이 이를 격파하고 3백여 명의 적을 죽였다. 왜구가 우리나라에 침입한 것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또「공양왕 4년(1392) 2월 정축일 왜구가 경상도 구

라도(현재의 녹도)에 침범하였다. 만호 이흥인(李興仁)이 이것을 격파하고 그 병선을 나포하여 바쳤으므로 그에게 쌀 20석을 주었다. 이흥인은 "이것이 어찌 나 혼자 힘이었는가"라고 말하고 모조리 술을 만들어 사졸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말 왜구는 영·호남 지방에 무려 360여회 이상 출몰하여 방화와 약탈을 했으며, 대마도에 본거지를 둔 무리로 추정되는 왜구들은 공민왕 7년(1358) 3월 기유일에 '倭寇角山戍 燒船三百餘(왜구가 각산 방어소에 침입하여 배 300여척에 불을 질렀다)'라는 기록과 공민왕 9년(1360) 4월 병자일(20일) '왜적이 사주각 산에 침입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있는바 이 곳 대방진 일대를 습격하여 살인과 방화 등의 만행을 저질렀고, 32년 후인 1392년 다시 구라도를 습격했으나 용맹스런 만호 이흥인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여 녹도에 묻힌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녹도에는 '왜구총터'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광복 직후 조선소를 짓기 위해 발을 정지하던 중 50구가 넘는 유골더미가 발견되었다고 전하는데 이것이 왜구를 묻은 장소가 아닌지 의심을 가진다.

고려시대 말엽에 빈번히 우리나라 연안을 침범하던 왜구(倭寇)의 노략질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금의 녹도(勒島)에 구라량(仇羅梁)을 설치하고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지켰으나 조선조에 이르러 세종 때 구라량이 고성의 사도(蛇島)로 옮겨감에 따라 구라량은 폐영(廢營)이 되고 말았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태종 7년 정해(1407) 7월 27일에는 '구라량' 기록되어 있으나 세종 1년 기해(1419) 7월 15일 이후에는 '구라량', '구라량(仇羅梁)'으로 혼용되고 있

고, 세종 9년 정미(1427) 3월 27일조에는 '고성의 구라량'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고성현조에는 '사랑(蛇梁)은 현 남쪽에 있는데, 수로(水路)로 70리이다. 구라량만호(仇羅梁萬戶)의 병선이 여기에 옮겨졌다. 구라량은 본디 진주 임내인 각산항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세종 20년 무오(1438) 10월 1일조에는 '병조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구라량의 병선(兵船)을 이미 사랑(蛇梁)으로 옮겨 정박하게 하고서 그대로 구라량만호라 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사랑만호라고 고쳐 부르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 후 성종 19년(1488)에 새로운 삼천진(三千里鎭)이 설치되어 삼천포의 근해를 방비하다가 임진왜란을 겪은 후 지금의 용현면 선진으로 옮겨지고 다시 광해군 11년(1619) 통영군 산일면 영운리 마루산 아래로 옮겨 갔다. 그리하여 삼천포 근해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순조(1801~1834) 때에 이르러 진주목 관하의 남해 창선도 적랑첨사(赤梁僉使)의 군당해 녹도에 묻힌 것을 위해 설치한 것이 대방선진(大芳船鎭)으로서 병선의 정박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독을 쌓아 활처럼 굽은 만(灣)을 만들었다. 굴항의 축조시기가 조선 순조 때인 182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로는 1973년경 동화동에 거주하던 안연섭옹(당시 86세)의 조부께서 굴항의 축조 공사에 부역을 하였던 구술이 있었고, 굴항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의 나이가 대략 20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아 추정하고 있다. 순조 때의 대방진 축조공사에는 진주 병사 관하의 72개 면민이 동원되었고 독을 쌓을 때 사용한 흙은 지금의 대방초등학교 부근인 각산개의 백토를 사용하였다고 전하며 지금도 독을 파보면 백토가 그대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흔히 대방진굴항은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숨겨 놓았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난중일기나 여타 임진란 기록 서적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이충무공전서」권지(卷紙)14 부록6 기실(記實)하(下) 안동부지(安東府志)에 보면 '前略) 三千浦前一海口 公嘗遂倭納諸港而扼其口 賊勢甚窮 鑿鑿山通道而遁 其乘夜通道之際 自相丈 稜 積屍如山 刀槍器械 無數遺棄 至今人稱其地爲 掘梁 (후략)'

(전략) 삼천포전유일해구 공상수왜납제항이액기구 적세 심공축착산통도이둔 기승야통도지제 자상장살 적시역산 도창기제 무수유기 지금임침지기 위 굴량 (후략)

이라는 글귀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충무공께서 해구에 왜선을 몰아넣어 그 임구를 막아서 적을 곤경에 빠뜨렸다고는 하였으나 거북선을 숨겼다는 말은 없음을 볼 수 있다.

이충무공전서의 내용과 순조 때의 축조공사 등으로 미루어 보면 임진란 무렵에 이미 '굴량'이 있었으나 순조 때에 와서 개축 내지 보강공사를 하면서 바다에서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대방진굴항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영을 갖춘 요새인데, 그 원형을 유지한 채 개발을 피하여 오늘까지 전하여져서 더욱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왜구들의 노략질이 연섭옹(당시 86세)의 조부께서 굴항의 축조 공사에 부역을 하였던 구술이 있었고, 굴항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의 나이가 대략 20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아 추정하고 있다. 순조 때의 대방진 축조공사에는 진주 병사 관하의 72개 면민이 동원되었고 독을 쌓을 때 사용한 흙은 지금의 대방초등학교 부근인 각산개의 백토를 사용하였다고 전하며 지금도 독을 파보면 백토가 그대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방진굴항의 명칭에 대하여 현지인들은 '굴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굴항을 두고 이르는 말로서 일부 향토사학자들도 굴항에서 港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목 항(項)자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향

구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또 잘못하게 만들어진 입구로 볼 때 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사전에는 '掘港'이나 '掘項'이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이충무공전서에 기록된 '굴량(掘梁)'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화재지정 후 대방진굴항의 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1987년 10월 석벽 및 독 보수공사가 있었고 1995년 4월부터 4월 21일까지 17,000천원의 사업비로 노거수 의과수술 17본, 뿌리수술 1본, 토양개량 7본 등 수목관리 사업을 하였으며, 2003년 6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업비 22,283천원을 들여 관광객 산책로의 자연 판석 포장, 산석 정비, 수문 및 등산주변 정비 공사를 하였고 2005년 6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사업비 100,000천원으로 항내 바다 준설과 아울러 수목식재지의 주변정비 사업을 하였으며, 2007년에는 80,000천원의 사업비로 도로접촉 부분의 석축제거 및 전통식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문화재를 찾는 시민들이 남해바다의 정취를 만끽하며 휴식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인데 특히 여름철 바다풍경과 삼천포대교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여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지로 변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대방진굴항에서 해안을 따라 서북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떨어져 있는 대방동 746번지 통상 군인숲으로 부르는 이곳은 그 면적이 2,164㎡(655평)로 옛날에는 울창한 숲이었으나 지금은 몇 그루의 고목이 있는 곳으로 당시 대방진 수군(水軍)들의 시체를 가매장하던 무덤터였다고도 하고, 군대가 주둔한 군영(軍營)이 있었던 숲이라는 뜻의 '군영숲'이 '군인숲'으로 와전되었다는 일설도 전하고 있어 대방진굴항이나 군인숲의 명칭도 정확하게 고찰하여 바르게 불러야 할 것으로 본다.

/조영규·사천시청 세무과



자장면을 먹으며~

자장면이 맛을까? 짜장면이 맛을까? 우리말의 난감이가 드러나는 말 중의 하나다. 짜장면이든 짜장면이든 우리가 느끼는 질감은 똑같다. 둘다 같은 음식이다. 하나 정답은 있다. 정서적으로 보자면 단연 짜장면이 더 맛깔스럽다. 짜장면은 웬지 낯설고 심심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짜장면이라는 글자속에 숨은 겹글자의 한국적 짜릿함 때문일 것이다. 우선 정답부터 알아야겠다. 짜장면이 맞다. 중국의 짜장과 면이 합쳐진 말로 짜장면을 표준어로 표기하고 있다. 식당에도 짜장면이라고 써 놓았다. 표기는 혼란스럽고 표기함으로써 발음할 때도 약간의 긴장감을 기해야 하니 썩 반가운 일은 아니다. 짜장면의 원조가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로 치자.

안도현의 어른이 읽는 동화 "짜장면"에서도 시인은 짜장면이라는 용어를 고수한다. 딱히 짜장면이 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굴러온 돌이 원래의 그것을 밀어낸데 대한 반기로서 짜장면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적 호칭이라고 호소한다. 이는 표준어를 무시하는 무례함이 아니라 짜장면 속에 깃든 정서적 교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다. 중국음식점에 짜장면은 없고 짜장면만 있다고 우리 짜장면의 이름을 더 살갑게 불러야 할 것으로 본다.

안도현의 어른이 읽는 동화 "짜장면"에서도 시인은 짜장면이라는 용어를 고수한다. 딱히 짜장면이 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굴러온 돌이 원래의 그것을 밀어낸데 대한 반기로서 짜장면은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외적 호칭이라고 호소한다. 이는 표준어를 무시하는 무례함이 아니라 짜장면 속에 깃든 정서적 교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다. 중국음식점에 짜장면은 없고 짜장면만 있다고 우리 짜장면의 이름을 더 살갑게 불러야 할 것으로 본다.

얼마 전 TV드라마에서 예쁜 여배우가 짜장면을 먹는 장면이 방송된 후로 그 무대였던 시골 가게는 하루아침에 대박을 맞았다고 한다. 경향각지에서 달려온 손님들로 인해 때 아닌 명소로 자리매김 되었다니 짜장면의 영광스런 부활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하면 지리산 마천에는 외팔로 짜장면을 만들어 파는 인생역전의 범부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짜장면은 유행어에도 그 실력을 발휘한다. "짜증날 땀 짜장면 우물할 땀 울면 복잡할 땀 뉘름밥 탕탕 탕탕 탕수육"

이런 짜장면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면류가 상품화되었고 다양한 양념과 소스를 곁들인 퓨전 요리로 젊은이들의 입맛을 훔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 오가는 갈등을 해결한 짜장면의 등장도 짜장면의 화려한 부활의 대표적 사례다. 중국집 실내의 화사한 변신도 짜장면의 명성을 되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4월 14일을 아예 블랙데일로 정해서 짜장면 먹는 날로 공표한 상술적 흐름도 그다지 밍지만은 않다.

짜장면이든 짜장면이든 우리에겐 둘 다 추억의 매체다. 나는 짜장면 홍보대사도 짜장면집 주인장도 아니다. 그저 사업식을 하던 면소제자 짜장면집은 개업한 이후로 아마 최대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기억된다. 공립했던 형편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고급 레스토랑이 복직된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짜장면의 알싸한 냄새가 면발에 감겨 목을 타고 넘어가는 달콤한 느낌은 거의 환상적이었다. 거기다 아삭거리는 단무지의 경쾌함이 춘장과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행복 덩어리인 셈이었다. 입가에 걸게 떠오른 자장의 흔적이 클수록 행복감은 비례해진다. 어디 졸업식뿐이

아니고 집집이 성황을 누린다. 으레 짜장면집이 복직될 것이라는 생각은 여지없이 빛나간다. 생각도 세월 따라 치장을 해야하는 모양이다. 내가 초등학교(그땐 국민학교였다) 졸업식을 하던 날 면소제자 짜장면집은 개업한 이후로 아마 최대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기억된다. 공립했던 형편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고급 레스토랑이 복직된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짜장면의 알싸한 냄새가 면발에 감겨 목을 타고 넘어가는 달콤한 느낌은 거의 환상적이었다. 거기다 아삭거리는 단무지의 경쾌함이 춘장과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행복 덩어리인 셈이었다. 입가에 걸게 떠오른 자장의 흔적이 클수록 행복감은 비례해진다. 어디 졸업식뿐이



/이용호·사천시 선구동



- 1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 2 김수영시장 상인 애로사항 청취
- 3 재래시장 물건 구입하기
- 4 어시장을 찾은 김수영 시장 상인이 환하게 반기고 있다.
- 5 설 준비로 분주한 재래시장 풍경

재래시장에서 훈훈한 정을...

시는 대형마트 입점 등 장기간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6일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 했다. 시는 재래시장이용을 독려하는 플랜카드를 달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장을 찾은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 주·정차 안하기, 인도면물 건넌 안하기 운동을 상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